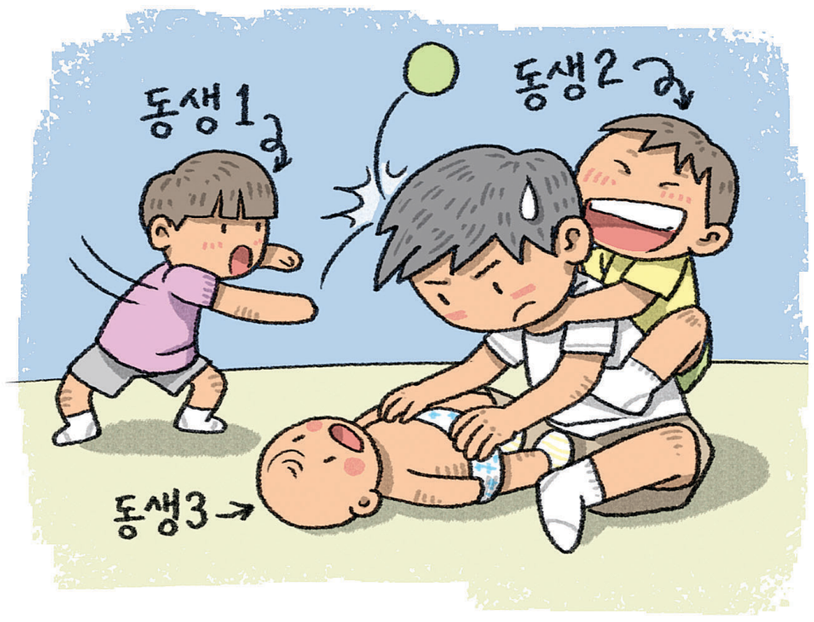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다른 집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않겠어요

I love my family for who they are and I will not compare them to other families.

한동안 크게 유행한 우스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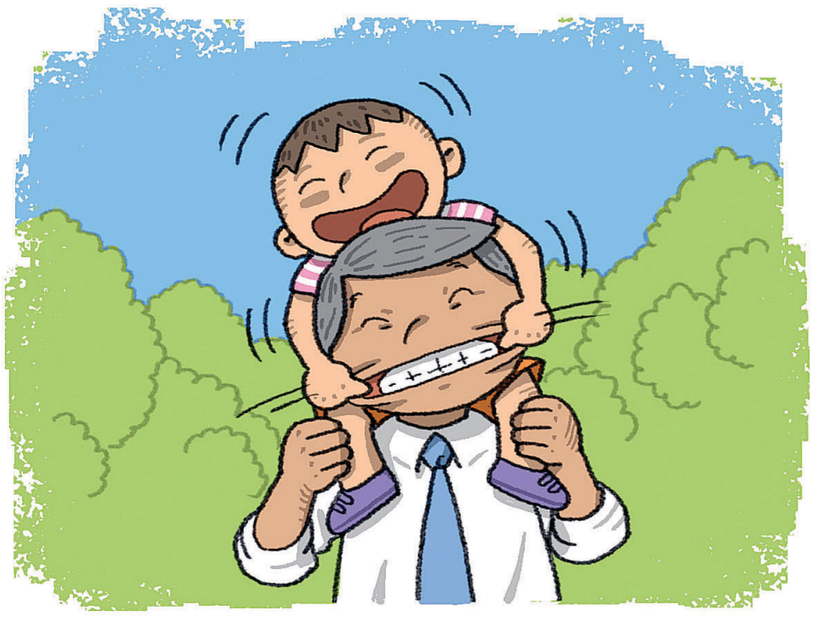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굴도 훤하고 성격도 좋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다니는 동안 계속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오라는 회사가 하도 많아서 고르고 골라 들어가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찌나 효자인지 수시로 부모님께 선물을 사 드립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을 때 '엄마 친구 아들은…' 하며 비교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족도 자주 비교의 대상에 올려놓습니다.

'다른 집 부모님들은 좋은 휴대전화도 척척 사주는데 우리 집은 왜이래?' '다른 집의 형들은 동생한테 잘하는데, 우리 형은 왜 저래?' '우리 집 아이들은 왜 남의 집 아이들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 할까?'

이런 비교는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올 뿐입니다. 가족의 나쁜 점을 확대해서 남과 비교하려 들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더없이 든든한 가족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 부모님이 여러분을 누구와 비교한 적이 있나요?
* 여러분은 어떤 때 가족을 남과 비교하나요?
* 우리 가족의 좋은 점을 말해 보아요



가족에게 예의를 벗어난 행동은 하지 않겠어요

I will treat my family with respect.

"엄마! 내 청바지 아직도 안 빨았어? 아이, 참. 엄마는 집에서 뭘 하는 거야?"

"아빠는 왜 새 가방도 못 사 줘?"

"으이그.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

"아빠가 돈 벌어오는 기계야?"

누구든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예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편하니까 함부로 해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런 생각이 가족 간의 예의를 허물어뜨립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절을 지키라' 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다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참모습입니다.

* 가족끼리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부모의 도리, 자녀의 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족에게 부드러운 표정으로 다정하게 말하겠어요

I will talk to my family with a smile, not a frown.

옛날 인도의 한 나라에 총명한 왕이 살았습니다. 왕은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딱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성품이 급하고 거친 왕의 어머니는 날마다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왕이 어머니를 모시고 신하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의 어머니와 신하들은 귀를 막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왕과 일행은 재빨리 그곳을 벗어나 꽃이 무성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소리가 났습니다. 코킬라 새가 내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새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왕의 어머니도 평화로운 얼굴로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옥구슬 구르는 소리를 내도, 말씨가 거칠면 외면 받네. 코킬라 새는 모습이 흉해도 우아한 소리로 사랑을 받네. 말씨가 부드럽고 현명하면 모든 이에게 세상의 진리를 설명할 수 있네."

왕의 어머니는 잘못을 깨달고 슬며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표정과 다정한 목소리는 누구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가족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족끼리의 대화가 줄어들면서 서로 다정하게 마음을 나누는 일이 드뭅니다. 서로 필요한 것만 요구하다 보니 말투도 다정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다정하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 가족끼리 대화는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나요?
* 가족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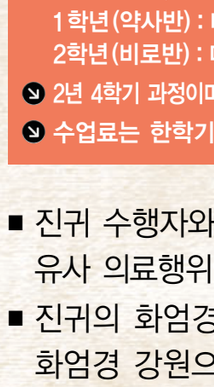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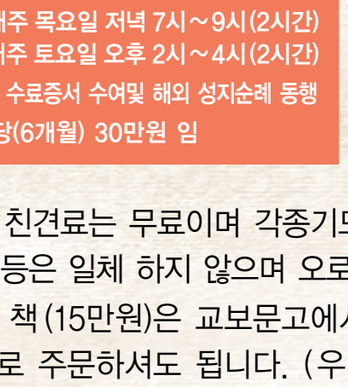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화엄경을 대본 없이 즉설로 강의하는
진귀의 화엄경 강좌

진귀스님의 화엄경 수행의 가피로 사람들의 몸과 1m이상 떨어진곳에서 마주앉아 차만 마셔도 절을 전혀 못하는 노보살이 절을 삼배하는 기적같은 일들이 강원에서는 누구나 체험 하게됩니다.

- 대상 : 비구, 비구니, 불교대학을 졸업한 재가불자
  1학년(약사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2시간)
  2학년(비로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 2년 4학기 과정이며 수료증서 수여및 해외 성지순례 동행
- 수업료는 한학기당(6개월) 30만원 임

■ 진귀 수행자와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천도재와 불교적 방편 및 유사 의료행위 등은 일체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잔의 친견과 강의만 합니다.
■ 진귀의 화엄경 책(15만원)은 교보문고에서 판매중이며 화엄경 강원으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입금(15만원)을 하신후 전화로 택배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2016년 1학기 과정부터는 등록 후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화엄경 강원 전화(대구) 1899~9532